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이해경 · 김혜원

한양대학교 · 호서대학교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1)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자들이 갖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의 특징적 차이가 무엇이며, 2)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고, 3)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가 학년과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10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변인들에서는 학년, 성별, 성적 변인이 집단괴롭힘 4집단(일반, 가해, 피해, 가해피해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리적 변인들에서는 개인주의, 적극적 대처방식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서 4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회귀분석결과에서는 가해행동은 또래폭력과 피해경험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피해행동은 부모폭력과 대인스트레스가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가해행동에는 또래폭력이, 여학생의 가해행동에는 부모폭력이 특히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피해행동에서는 남녀 모두 부모폭력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년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저학년의 가해행동에서는 역시 또래폭력과 비행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예측변인이 되는 반면에 고학년의 경우에는 매체폭력과 비행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피해행동에 대해서는 전학년에 걸쳐 나타난 부모폭력과 대인스트레스의 중요성과 함께 4학년에서는 가해경험, 5학년에서는 교사폭력, 6학년에서는 친구지지와 가족지지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 결과가 갖고 있는 의미와 집단괴롭힘의 예방과 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집단괴롭힘, 가해자, 피해자, 가해피해자

학교 현장에서 아동들은 필요한 지식을 배울 뿐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연습한다.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특성은 당시의 생활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추후 대인관계의 형태를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기본틀이 된다. 그러나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벽인 집단괴롭힘, 즉 왕따의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어 사회적 우려

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집단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해온 학생이 자살하면서 이 문제가 학교와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지나친 과열보도라는 비난이 일 정도의 대중매체의 관심과 함께 학계에서도 다양한 방향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처음 관심이 일기 시작한 이후 2-3년의 기간이 지난 90년대 말부터

는 대중매체의 과열 보도가 사라지면서 마치 우리 사회에 집단괴롭힘의 현상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사라진 것으로 여겨질 만큼 집단괴롭힘에 대한 언급들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의 보도들에 따르면 집단괴롭힘의 현상은 결코 줄어들거나 그 현상이 호전되었다는 인상을 갖기 어렵다. 최근 전국의 초중고생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학교폭력(21.9%)과 집단괴롭힘(19.8%)을 학교생활의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었다(동아일보, 2000. 12. 9). 또한 지난 8월 서울시내 534개 초등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집단괴롭힘을 포함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98년 5346명에서 99년 6257명으로 늘어났고, 2000년 7월 말까지는 409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0. 12. 21).

집단괴롭힘은 유치원때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활동이 있는 어느 집단에게나 예외없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이 중 초등학교생들의 집단괴롭힘 현상은 특히 사회적 주목이 집중되어야 한다. 우선 최근의 조사결과들을 보면 중·고등학교 사이에 만연해 있던 집단 괴롭힘 현상이 초등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림대 성심병원 소아정신과 김영신 교수팀은 지난해 11월 안양의 2개 초등학교 4~6년 학생 532명을 대상으로 집단괴롭힘 발생율을 조사한 결과, 44%가 피해자로, 또 다른 44%는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신문, 2000. 6. 5). 또한 최근 보험회사들이 각종 어린이보험 상품을 집단괴롭힘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늘어나고 있는 집단괴롭힘 현상을 입증하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생들의 집단괴롭힘 현상에는 주변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하는데, 초등학교생들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의 갈등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이 적을 뿐 아니라, 대부분 그 지역내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속에서 초등학교 때 시작된 집단괴롭힘의 패턴이 이들의 청소년기 전반에서 유지되기 쉽기 때문이다. 지난 8월 53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집단괴롭힘의 피해자 중 본인이 '인정'한 사례는 또래 친구들이나 교사의 응답에 비해 극히 적은 숫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일선교사들은 "중고등학생과 달리 초등학교생의 경우 '속으로 앓는'

경향을 감안하면 실상은 훨씬 심각하다"고 말한다(동아일보, 2000. 12. 21).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괴롭힘 연구들은 대부분 실태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윤곽을 살피거나(예: 박경숙, 손희권, 1998; 이춘재, 곽금주, 1999), 혹은 몇 개의 사회심리적 변인을 다루어 부분적으로나마 이들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예: 김석진, 2000). 그러나 초등학교생들의 집단괴롭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의 관련성과 이들 변인들의 구체적인 설명력을 제시한 심층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행동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며 이들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영향력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초등학교의 집단괴롭힘 현상에 있어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아래 이론적 배경에 제시되어 있듯이 초중고학생들의 집단괴롭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의 관련성이 부분적으로는 밝혀졌으나 초등학교에서의 특징적 차이를 심층적으로 밝힌 연구가 결여되어 있고,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결과가 연구들마다 상당히 비일관적이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1. 집단괴롭힘의 정의와 특징

집단괴롭힘과 관련하여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개념을 정의 내려 왔다. 첫째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내려질 수 있는 정의이다. 예를 들어, 구본용(1997)은 "집단괴롭힘이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그가 속한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강진령과 유형근(1999)은 괴롭힘은 "공식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이나 만족을 위해 스트레스를 유발할 의도로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언어적으로 반복하여 공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해자 측면의 개념 정의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의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과 제3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행위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닌다(이춘재, 1999). 예를 들어, 가해자는 장난의 일종으로 행한 행위가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서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집단괴롭힘을 정의내린 대표적인 학자로는 Olweus를 들 수 있다. Olweus(1978, 1984)는 bully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집단괴롭힘을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광금주(1999)는 집단괴롭힘이란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현상”으로 이에 직접적인 폭력(능동적 공격: 구타, 폭행)과 간접적인 폭력(수동적 공격: 소외, 심리적 배제)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이춘재(1999)는 집단괴롭힘은 “집단내 힘의 균형점에서 우위에 있는 자의 영향에 따라 형성된 패거리들로부터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자극을 받음으로써 심리적인 소외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겪고 있거나 신체적인 상처와 물리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와 더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장애를 느끼고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정의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집단괴롭힘은 기타의 학원 폭력과 달리 몇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Smith(1991)는 집단괴롭힘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3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해진 행위는 정당하지 않으며, 둘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며, 한 두 번 정도 일어난 것은 괴롭힘이라 불리지 않으며, 셋째, 집단 괴롭힘이 극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장기간의 매우 불행한 영향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다. 또한, 이춘재와 광금주(1999)는 집단괴롭힘과 관련된 다음 3가지의 특성을 제시한다. 첫째, 집단 괴롭힘은 공격적인 행동이거나 고의적인 “harm doing”이며, 둘째,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셋째, 힘의 불균형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난다.

이와 같이 Bullying은 그 개념에 두 가지 중요 요소를 갖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행동이 대체로 집단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행동들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을 지닌 공격행동을 일컫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집단괴롭힘의 유형은 크게 직접적인 괴롭힘과 간접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직접적인 괴롭힘이란 피해대상에 대해 폭행이나 구타 뿐 아니라 위협, 못살게 굴고 놀리는 것과 같은 공격적 행동을 가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괴롭힘은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소외, 내적인 배제를 가하는 것이다(Olweus, 1993). 또한, Olweus(1993)는 집단괴롭힘을 학원폭력의 하위범주로도 분류한다. 그에 따르면 학원폭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는 능동적 폭력과 수동적 폭력이다. 한 학생이나 집단이 한 학생을 상대로 신체적 해를 가하고 언어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능동적 폭력인 반면, 집단괴롭힘과 같이 은근히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경우는 수동적인 학원폭력이다.

집단괴롭힘에 대한 이상의 정의와 특징들 중에서 본 연구는 이춘재, 광금주(1999)가 제시한 정의를 따라 집단괴롭힘 피해행동을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직접적인 폭력(능동적 공격: 구타, 폭행)과 간접적인 폭력(수동적 공격: 소외, 심리적 배제)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았고,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집단괴롭힘과 관련된 사회, 심리적 요인들

본 연구에서는 집단괴롭힘 행동에 대한 예측 변인들로서 아래와 같은 변인들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들 변인들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비교적 분명한 관련성이 제기되어 왔거나, 아니면 연구들마다 비밀관적인 결과들을 제기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혹은 문헌적 제기는 있으나 아직 분명한 실증적 검토가 없었던 변인들이 포함되었다.

(1) 연령 및 학교급간의 차이

집단괴롭힘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 폭넓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용태, 박한샘, 1997; 박경숙, 손희권, 1998; 이춘재, 광금주, 1999; Olweus, 1993). 연령에 따른 집단괴롭힘의 양상을 연구하면서 Olweus(1994)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집

단괴롭힘의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감소함을 밝혔다. 즉, 어린 학생들일수록 더 많은 잠재적인 가해자들을 갖게 되며 주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Whitney와 Smith(1993)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집단괴롭힘의 보고율이 감소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몇몇 국내 연구에서도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은 중학생보다 초등학교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손창기, 1999; 이춘재, 광금주, 1999). 또한, 초, 중, 고등학교 교장 및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교장들이 인지하고 있는 집단괴롭힘 발생실태는 초등학교 0.2%, 중학교 0.14%, 고등학교 0.07%로 초등학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춘재, 1999).

이와 달리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경숙, 손희권(1998)의 연구에서는 집단괴롭힘의 피해경험이 중학생(26.9%), 초등학생(25.1%), 고등학생(21.3%)의 순으로 나타나 중학교에서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함께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들에서는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들의 집단괴롭힘 현상이 더 빈번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7; 우리교육, 1999; 주성욱, 1999).

(2) 성별

성별에 따라 집단괴롭힘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Olweus(1994)에 의하면 집단괴롭힘의 경향은 여학생에게보다 남학생에게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중, 고등학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비슷한 수준의 간접적 괴롭힘(예: 사회적인 고립이나 배척, 소문 퍼트리기)을 하는 반면, 폭력과 같은 직접적 괴롭힘은 남학생에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 많은 집단괴롭힘이 나타나는 현상은 공격적 행동에서의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Maccoby & Jacklin, 1986).

그러나, 이상의 현상은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상이하게 나타난 바 있다. 1500명의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이춘재, 광금주, 1999) 집단괴롭힘

의 가해와 피해경험 모두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동일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에서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와 달리 몇몇 연구에서는(박경숙, 손희권, 1998; 양계민, 정현희, 1999) 남학생의 피해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Olweus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Olweus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남학생들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수동적이면서 상대하지 않은 것과 같은 무시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 남녀간에 차이를 나타냈다(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7).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공격 방법과 간접적인 공격 방법을 혼합한 연구도구를 사용하거나 성별과 괴롭힘 방법간의 관계를 통제한 후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폭력노출

청소년기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이들이 다양한 장면과 상황에서 경험해 온 과도한 폭력노출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텔레비전, 영화 등 대중매체에 의한 과도한 폭력노출의 부정적 영향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고 둘간의 높은 상관성도 보고된 바 있다(Anderson, Lorch, Field, & Sander, 1981; 송대현, 1988; Perry, Perry & Boldizar, 1990; 광금주, 1992). 폭력노출을 다루는데 있어 대중매체로부터의 폭력뿐 아니라 교사나 부모로부터의 폭력 또한 주목할 만하다. 흔히 '사랑의 매' 혹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교사나 부모의 체벌은 또래들간에 일어나는 폭력보다 더 빈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청소년대화의 광장, 1996). 그러나, 청소년기의 또래들에 의한 폭력노출은 부모나 교사에 의한 폭력에 비해 더욱 큰 중요성을 갖는데 이는 또래에 대한 동조와 또래와의 친밀감 형성이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의 하나인 청소년시기에(Lloyd, 1985, 장휘숙, 1995에서 재인용)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폭력은 이들에게 더욱 커다란 심리적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매체, 또래, 가정, 학교에서의 폭력노출이 집단괴

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들(예: 이해성, 1997)은 최근 김혜원과 이해경의 연구들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김혜원, 이해경, 2000; 이해경, 김혜원, 2000). 이들의 연구에서 가해행동에는 또래폭력, 가정폭력, 대중매체폭력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피해행동에서는 교사폭력이 중요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공감능력

집단괴롭힘 혹은 학원폭력은 피해를 당하는 상대의 고통을 정상적으로 느끼거나 감안하지 않는 공감능력의 결여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구본용, 1997). 특히 상담심리학적 입장에서는 집단괴롭힘의 원인과 치료방법으로 공감능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면서 몇몇 연구에서는 집단괴롭힘 가해자들이 일반 학생들보다 폭력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Olweus, 1994), 공감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igby, 1993).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서도 집단괴롭힘 가해집단은 일반집단이나 피해집단에 비해 공감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가해집단은 가해피해집단에 비해서도 공감능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원, 이해경, 2000).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집단괴롭힘의 가해행동을 한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숙, 1989). 특히 이러한 기대는 남아가 여아에 높았고, 이들은 공격 행동을 하는데 있어 이 행동이 자신에게 가져다 줄 부정적인 평가나 피해자가 겪을 고통에 대한 예상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에 대해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자신과 무관하다고 느끼며 감정이입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곽금주, 1999; 김인규, 1996).

(5)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집단괴롭힘이 야기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입시위주와 통제위주의 교육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좌절을 강조한다(구본용,

1997). 입시위주의 환경은 학생들을 쉽게 좌절하게 만들고 욕구의 좌절은 분노를 야기하고(구창모, 1991; Barker, Dembo, & Lewin, 1941) 따라서 공격과 폭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청소년 폭력과 같이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들 또한 욕구불만이나 학업실패로 가해행동을 할 것이라는 가정은 Olweus (1977)의 연구에서는 입증되지 못했다. 다년간의 연구에서 444명의 남학생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종단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집단괴롭힘 행위는 불량한 성적이나 학업실패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달리 몇몇 연구자들은 청소년폭력이나 비행은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방식에 결합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고한다(예: D'Zurilla & Goldfried, 1973). 따라서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들은 욕구좌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외의 건설적이고 대안적인 문제해결양식을 생성해내지 못하거나, 창출된 대안 중 폭력을 사용하거나 강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은 김혜원과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다. 이들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해 집단괴롭힘 가해, 피해, 가해피해 집단과 일반집단을 비교한 결과, 우선 학업관련 스트레스나 대인관련 스트레스가 정상집단과 가해집단에 비해 피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에 대해서는 4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나, 소극적 대처방식은 가해, 피해, 가해피해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자존감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아동기 후반의 자아존중감 발달은 인지적 및 사회적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즉, 이 시기에는 학교에서 성적이 높은가와 친구수가 많은가가 자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아동의 자존감은 3학년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5학년 때 큰 폭으로 낮아진다고 한다(김희화, 1993).

일반적으로 자존감과 폭력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선

행연구들은 낮은 자존감이 여러 종류의 범죄나 폭력과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신준승, 1991; 박금주, 문은영, 1993, 1995; Reasoner, 1994). 반면, 집단괴롭힘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집단괴롭힘 가해자가 다른 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오히려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Slee, 1994; Austin & Joseph, 1996; 이춘재, 박금주, 1999; 양계민, 정현희, 1999; 한종철, 이민아, 이기학, 1999; 김혜원, 이해경, 2000; 이해경, 김혜원, 2000).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해 처음부터 높은 자존감을 지닌 집단이 집단괴롭힘의 가해자가 되고 낮은 자존감을 지닌 집단이 피해자가 된다는 가정은 무리일 것이다. 이는 집단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집단의 낮은 자존감이 집단괴롭힘을 유발하는 선행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집단괴롭힘의 결과로 피해자집단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연구결과들(Olweus, 1994; Slee & Rigby, 1993)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7)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타인이 주는 실제적, 정신적 지원을 뜻한다. 아동은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지의 범위가 가정 안에서 가정밖으로 커져가고, 사회적 지지자로서 또래의 중요성 또한 높아져 간다. 이와 함께, 또래의 기능 중 동반자적 지지의 기능이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송명자, 1998).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의 감소방안으로 가족과 외부의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예: Howard, 1996).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이춘재와 박금주(1999)의 연구에서는 정상집단이 가장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다음으로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의 순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원과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도 정상집단은 가족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고, 다음으로 가해집단, 피해와 가해피해집단의 순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구지지에서는 가해집단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그 다음으로 정상집단, 가해피해집단, 피해집단의 순으로 받는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는 집단괴롭힘 피해정도는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적게 받을수록 늘어나

는 반면 교사로부터의 지지는 많이 받을수록 늘어난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8) 애착

집단괴롭힘의 원인은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변인들에 의해 야기되지만 또한 가장내적인 변인으로서 부모와의 관계 또는 양육태도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Olweus, 1978). Olweus(1978)은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들이 갖는 공격성의 발전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초기 몇 해 동안의 일차적 양육자(보통은 어머니)가 아동에게 대하는 기본적인 정서적 태도(온정과 관심의 부족)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적 태도를 갖게 될 때 나중에 아동이 타인에 대해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둘째, 체벌이나 난폭한 정서적 폭발과 같은 힘에 의한(power-assertive) 양육태도를 지니거나, 부모가 이런 방법들을 자주 사용하면, 아동은 평균적인 아동보다 더 공격적이 된다. 또한, Chazen(1988)에 따르면 집단괴롭힘 가해아동들은 보통 화목하기보다는 우울한 유아기를 보냈으며 심한 가정불화나 가정폭력, 그리고 훈계 또는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갖는 부모환경을 지니고 있어,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은 애정이나 부모의 감독에 대한 경험이 없고 집단괴롭힘의 피해를 당한 경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Chazen(1988)은 과거의 부모로부터의 애정정도나 가정환경은 가해자나 피해자들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틀을 구체적으로 검증한 국내외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다만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이해경, 2000)에서 애착 유형은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 대해서는 중요한 설명변인이 되지 못하는 반면, 불안정 애착은 피해경험에 중요한 설명변인이 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9) 집단주의

일본에서는 학교의 이치메 현상을 집단주의적 문화의 부정적인 한 형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집단주의란 개인주의와 대조를 이루는 이데올로기로 내집단의 화목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는 특징을 갖는다(한규석, 1996).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사회는 집단주의적 색채가 비교적 강한 문화권으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고, 의례적 대화를 주고받고, 눈치를 살피고, 적절한 핑계를 댄으로써 내집단과의 영속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구성원들간에 강하게 발생한다.

청소년들의 집단괴롭힘 현상은 우리사회의 이러한 집단주의적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가우디, 1999).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그 경향이 강해지게 되면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외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는 매우 냉혹한 평가와 행동을 하게 된다. 즉, 자신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온통 자신의 색깔로 지배하려 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강요하게 된다. 이러한 강요에 따라 상대에게 요구하는 희생의 폭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신의 관념에 따라 자식을 길들이려는 부모의 훈육과 일방적인 가치관을 주입시키려는 학교의 교육이 함께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들의 집단괴롭힘 현상과 연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집단주의적 혹은 개인주의적 경향성이 집단괴롭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배경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밝힌 실증적 결과는 거의 없다.

(10) 비행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학원폭력이 폭력행동을 포함하지 않는 다른 비행들(흡연, 음주, 두발이나 복장불량, 가출이나 무단결석, 절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김준호, 김혜원, 1997), 학원폭력의 한 범주에 해당되는 집단괴롭힘 행동, 특히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이 기타의 비행과 관련되어 있으리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집단괴롭힘 현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행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김정기(1998)의 연구에서는 집단괴롭힘 가해자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비행과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계민과 정현희(1999)의 연구에서도 집단괴롭힘 가해자들은 두발이나 복장단속, 가출, 절도, 무단결석 등의 일반비행 정도가 다른 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행동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의 특징적 차이를 밝히고, 둘째,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의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 및 피해행동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특히 성별과 학년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하였듯이 일부의 관련요인들은 집단괴롭힘과의 긴밀한 관련성이 상당부분 밝혀졌거나 혹은 일부 요인들은 관련성 여부자체에 더 많은 결과가 축적되어야 하지만, 이와 달리 연령과 성별이 집단괴롭힘과 갖는 관계는 연구들마다 상당히 비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 법

1. 조사 대상자

2000년 6월 25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서울 시내에 있는 3개 초등학교에서 4, 5, 6학년 10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각 학년별과 성별의 비율을 비슷하게 표집하였다. 준비된 설문지는 각 학급의 담임선생님을 통해 모두 30학급에 아침자습 시간을 이용하여 배부하고 학생들의 응답이 모두 끝나기를 기다려 회수하였다. 설문지 실시에서 아동들에게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4학년의 경우는 설문지 상의 어려운 낱말을 각 반 담임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설문응답에서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1021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2. 측정 도구

1) 사회적 변인

(1) 학생 관련 변인: 학생들의 학년과 학교, 나이, 성별, 가정 생활 정도, 한달 평균용돈, 학교 성적, 개인적인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수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2) 가정 관련 변인: 학생이 동거하는 가족 형태, 부모님의 교육 수준, 가정 경제 생활 정도에 대해 질문하

였다.

2) 심리적 변인

(1) **애착:** 아동과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부모와의 애착정도를 측정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번역한 척도(장희숙, 1998)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문항 각각 9문항씩 18문항을 사용하였고(부애착 신뢰도계수 $\alpha=.72$, 모애착 신뢰도계수 $\alpha=.72$), 이들 문항을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2) **공감:** 공감 능력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상담에서 공감수준을 진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Carkhuff(1969)의 척도를 응용하여 부모-자녀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내용(김정수, 1997) 4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신뢰도계수 $\alpha=.72$). 이들 질문에 대한 각 반응들은 공감 1수준에서 5수준까지 모두 다섯 개의 예들을 제시하였고, 여기서 1수준은 공감수준이 가장 낮은 반응이고 5수준은 가장 높은 공감 반응을 의미한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이명자(1996)가 수정한 10문항 중 내적일치도가 떨어지는 1문항을 제외한 9문항을 사용하였고(신뢰도계수 $\alpha=.84$) 이들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4) **집단/개인주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항은 Triandis(1995)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척도에서 각각 6문항씩 12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집단주의 척도(신뢰도계수 $\alpha=.62$)와 개인주의 척도(신뢰도계수 $\alpha=.41$)에 대해 각각 5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5)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Duban과 Ulman(1989)의 사회적지지 평가척도를 번안(이명화, 1998)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 척도는 가족지지 3문항(신뢰도계수 $\alpha=.84$), 친구지지 3문항(신뢰도계수 $\alpha=.82$), 교사지지 3문항(신뢰도계수 $\alpha=.59$)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문항을 각각 5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6) **스트레스:** 정미영(1993)이 최해림(1986)의 스트레스 척도를 기초로 제작한 16문항을 본 연구에서는 초등 학생에서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내적 일치도가 떨어지는 문항을 제외한 대인 관련 스트레스 5문항(신뢰도계수 $\alpha=.66$)과 학업 관련 스트레스 5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들 5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7)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65문항을 정미영(1993)이 요인 분석하여 제작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대처 방식을 포함한 적극대처 문항(신뢰도계수 $\alpha=.74$)과 정서 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를 포함한 소극적 대처 7문항(신뢰도계수 $\alpha=.68$)로 구성되어 있고(전체 척도 신뢰도계수 $\alpha=.70$)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8) **폭력 노출:** 폭력 노출 정도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폭력의 정도를 가정내의 폭력 4문항(신뢰도계수 $\alpha=.8256$), 교사의 폭력 5문항(신뢰도계수 $\alpha=.82$), 또래나 선후배폭력 6문항(신뢰도계수 $\alpha=.69$), 대중매체 폭력(신뢰도계수 $\alpha=.82$) 4가지로 구분하여 총 20문항을 질문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해 각각 5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9) **비행경험:** 비행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심용철(1992)이 제작한 비행척도의 일부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하위항목은 1) 담배 피우기 2) 술 마시기 3) 학생에게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기 4) 가출이나 무단 결석하기 5) 절도나 남의 돈 뺏기 6) 집단으로 패싸움하기 7) 약물경험(본드, 가스, 환각제) 8) 음란서적이거나 음란비디오 보기 등의 8개 항목($\alpha=.83$)이며 이들은 6점 척도(0점: 경험한 적이 없다~5점: 거의 매일 있었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10) 집단괴롭힘의 경험: 집단괴롭힘의 가해 정도와 피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괴롭힘의 정의(이춘재, 곽금주, 1999)에 해당하는 각 6개 행동 항목들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에 “집단괴롭힘을 한 경험이 있는가”와 “집단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하위 항목은 1) 욕을 하거나 심하게 놀리기 2) 고의로 끼워주지 않거나 무시하기 3)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위협하기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손상하기 5)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험한 욕하기 6) 헛소문으로 친구들이 그 학생을 싫어하게 하기에 대한 6개 항목이며 이들을 5점 척도(1점: 전혀 없었다~5점: 거의 매일 있었다)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집단괴롭힘 가해척도의 신뢰도계수는 $\alpha = .83$ 였고 피해척도의 신뢰도계수는 $\alpha = .86$ 였다.

3) 집단괴롭힘 관련 집단구분

최근 6개월동안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정도를 측

정한 6개 항목점수를 기초로 이춘재와 곽금주(1999)의 집단구분에 따라 일반집단,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일반집단은 지난 한 학기 동안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 항목 둘다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말한다. 가해 집단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항목에서 1번도 없고 가해 행동만 1번 이상 있었던 집단인 반면, 피해 집단은 가해 경험은 1번도 없고 피해 행동만 1번 이상 있었던 집단이다. 가해피해아동은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경험이 각각에서 모두 1번 이상 있었던 집단이다.

결 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응답자들의 사회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들의 일반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변인에서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10.95세였고, 학년별, 남녀 비율은 각 집단

표 1.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의 빈도(%) / 평균(SD)

변 인	항 목	빈도(%) / 평균(SD)	변 인	항 목	평균 (SD)
학 년	4학년	328 명 (30.9%)	애 착	부 애착	3.68 (.66)
	5학년	366 명 (34.5%)		모 애착	3.99 (.66)
	6학년	368 명 (34.7%)	공 감		1.50 (.40)
나 이		10.95 세 (1.44)	자존감		3.88 (.76)
성 별	남	517 명 (48.7%)	집단주의		2.41 (.46)
	여	528 명 (49.7%)	개인주의		2.12 (.45)
부모형태	친부모	943 명 (88.8%)	사회적 지지	친구지지	1.24 (.31)
	기 타	97 명 (9.1%)		가족지지	1.35 (.30)
가정생활정도	못사는 편	16 명 (1.5%)		교사지지	1.07 (.29)
	중간	855 명 (80.5%)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1.74 (.58)
	잘사는 편	169 명 (15.9%)		대인 스트레스	1.22 (.48)
용 돈	1만원 미만	618 명 (58.2%)	스트레스 대처양식	적극 대처	2.27 (.60)
	1~5만원	359 명 (33.8%)		소극 대처	2.58 (.60)
	6~10만원	15 명 (1.4%)	폭력노출	부모 폭력	.20 (.31)
	10만원 이상	10 명 (1.0%)		교사 폭력	.17 (.34)
성적	上	130 명 (12.2%)		도래 폭력	.55 (.29)
	中	814 명 (76.6%)		매체 폭력	.39 (.45)
	下	98 명 (9.2%)	비 행		.09 (.29)
친구 수	1명	214 명 (20.2%)			
	2~4 명	513 명 (48.3%)			
	5~7 명	173 명 (16.3%)			
	8명 이상	147 명 (13.8%)			

별로 비슷하게 분포되었다. 부모의 동거형태는 친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경우(친부 혹은 친모 중 한 분과 살거나, 친척과 살거나, 친부모중 한 분과 계부모와 사는 경우)보다 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정 생활정도는 중간정도가 가장 많고, 용돈은 대다수의 아동(92.0%)이 한 달에 5만원 이하의 용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적은 중간정도가 가장 많았고, 속을 터놓고 개인적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친구 수는 2~4명이 가장 많았다.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적지지에 대해 학생들은 가족과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가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보다 약간 높았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약간 높았다. 스트레스 정도에서는 대인관련 스트레스보다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고,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서는 활동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하는 적극적인 대처방법보다는 문제를 잊어버리거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꾸는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폭력에 노출되어 온 정도에 대해서는 또래 폭력노출이 가장 높고 매체폭력 노출이 그 다음으로 높은 반면 부모폭력과 교사폭력 노출은 비교적 적었다.

2. 집단괴롭힘 관련 4집단의 빈도와 학교, 성별에 따른 가해와 피해경험률

응답자들이 지난 한 학기 동안 경험한 집단괴롭힘과 관련된 4집단간 빈도(표 2)와 가해와 피해경험 정도의 평균은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집단괴롭힘 4집단간에서의 사례수를 살펴보면(표 2) 일반집단 아동들이 전체 1021명중 251명(23.6%)인 반면, 나머지 770명(72.6%)의 아동은 가해, 피해, 가·피해 경험 중 하나의 경험을 갖고 있어 집단괴롭힘 현상이 다수의 학생들에 퍼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집단괴롭힘의 가해만 한 학생은 19.8%, 피해만 당한 학생은 12.0%여서 학생들은 집단괴롭힘을 당한 것보다는 상대를 괴롭힌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가해 혹은 피해만을 단일하게 경험하는 학생보다 가해와 피해를 순환적으로 경험하는 가해피해집단이(40.8%) 훨씬 많았다.

응답자들은 지난 한 학기동안 전체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경험을 '한달에 1-2번' 내지 '3-5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와 피해경험에 대한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학생들이 가해와 피해의 경험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가해와 피해경험의 평균을 비교해 볼 때, 집단괴롭힘 4집단에 대한 빈도의 분석에서와는 약간 차이를 보이면서 가해와 피해경험 둘 다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그러나 가해경험/피해경험과 성별간의 변량분석의 결과에서는 경험의 종류와 성별에 따른 주효과만 있을 뿐, 두 변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가해와 피해경험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4집단간의 빈도분석에서도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듯이 고학년일수록 가해경험이 많은 반면, 피해경험은 저학년에게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분석(Scheffe분석) 결과 6학년은 4학년과 5학년생들에 비해 가해경험이 유의미하게 많고, 4학년은 6학년생에 비해 피해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집단괴롭힘 관련 4집단의 빈도(%)

변인	빈도 (%)
일반 집단	251명 (23.6%)
가해 집단	210명 (19.8%)
피해 집단	127명 (12.0%)
가해피해집단	433명 (40.8%)

표 3. 학년, 성별에 따른 가해와 피해경험 평균(SD)

변인	성별		학년별			전체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가해경험	2.85 (3.80)	2.18 (3.47)	2.05 (3.59)	2.34 (3.38)	3.06 (3.88)	2.67 (4.37)
피해경험	3.15 (4.80)	2.13 (3.75)	2.91 (4.61)	2.75 (4.38)	2.27 (3.96)	2.64 (3.68)

3.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의 집단괴롭힘 4집단에 따른 차이

여기서는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이 집단괴롭힘의 4집단들에서 어떻게 다른가, 즉 집단괴롭힘의 각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집단괴롭힘의 가해, 피해행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인들이 관련되어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먼저, 사회적 변인 중에서는 학년, 성별, 성적이 4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친구수는 유의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변인중에는 개인주의, 적극적 대처변인 외의 모든 변인에서 4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변인들만을 대상으로 추후분석을 실시하고, 여기서는 추후분석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만을 기술하였다.

표 4의 사회적 변인들에서 4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4학년의 경우 가해피해아동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아동이 많았고, 피해아동, 가해아동은 비슷하게 적었다. 5학년의 경우 가해피해 아동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었으며 일반, 가해, 피해의 순으로 적었다. 6학년의 경우 가해피해아동이 가장 많고, 가해, 정상, 피해아동의 순으로 적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 가해피해집단이 가장 많았고, 일반과 가해집단이 비슷하게 그 다음으로 많았고, 피해집단이 가장 적었다. 여자의 경우, 가해피해집단이 가장 많고, 일반집단, 피해집단, 가해집단의 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모두에서 가해피해집단이 가장 많으나 남자는 여자에 비해 가

표 4. 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빈도(%)와 빈도분석 결과

변인	일반	가해	피해	가·피해	χ^2
학년					
4	101명(32.8%)	40명(13.0%)	51명(16.6%)	116명(37.7%)	54.25***
5	85명(24.2%)	59명(16.8%)	42명(12.0%)	165명(47.0%)	
6	65명(18.0%)	111명(30.7%)	34명(9.4%)	152명(42.0%)	
성별					
남자	101명(20.4%)	95명(19.2%)	59명(11.9%)	241명(48.6%)	17.55**
여자	146명(28.7%)	11명 (12.2%)	68명(13.4%)	184명(36.1%)	
동거인					
친부모	226명(24.9%)	192명(21.1%)	110명(12.1%)	381명(41.9%)	5.54
기타	22명(24.4%)	11명(12.2%)	16명(17.8%)	41명(45.6%)	
가정생활정도					
하	4명(30.8%)	0명(0.0%)	1명(7.7%)	8명(61.5%)	9.42
중	191(23.1%)	173명(20.9%)	104명(12.6%)	359명(43.4%)	
상	49명(30.8%)	34명(21.4%)	19명(11.9%)	57명(35.8%)	
용돈					
1만원미만	151명(25.6%)	113명(19.2%)	78명(13.2%)	248명(42.0%)	6.83
1~5만원	81명(23.1%)	87명(24.9%)	38명(10.9%)	144명(41.1%)	
6만원 이상	5명 (20.8%)	3명(12.5%)	3명(12.5%)	13명(54.2%)	
성적					
상	29명(22.7%)	32명(25.0%)	13명(10.2%)	54명(42.2%)	28.14**
중	210명(26.8%)	161명(20.5%)	103명(13.1%)	311명(39.6%)	
하	9명(10.0%)	12명(13.3%)	9명(10.0%)	60명(66.7%)	
친구수					
1명	41명(19.9%)	33명(16.0%)	34명(16.5%)	98명(47.6%)	16.66+
2~4명	128명(25.9%)	98명(19.8%)	56명(11.3%)	212명(42.9%)	
5~7명	36명(22.0%)	45명(27.4%)	19명(11.6%)	64명(39.0%)	
8명 이상	42명(29.6%)	32명(22.5%)	15명(10.6%)	53명(37.3%)	

+ = .05 ** p < .01 *** p < .001

해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적 과의 관련성은,上和 中인 경우는 가해피해집단이 가장 많고 일반과 가해집단이 그 다음으로 적었고, 피해집단이 가장 적었다. 下인 경우는 가해피해가 역시 가장 많았고, 가해집단이 그 다음으로 일반과 피해집단이 같은 비율로 적었다.

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해피해집단과 가해집단은 많아지는 반면 일반집단과 피해집단은 적어지며, 성별에 따라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가해피해집단이 가장 많으나 남자는 여자에 비해 가해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적에 따라서는 성적 상위와 중위권 학생들의 양상이 비슷한 반면, 성적 하위집단의 경우는 다른 집단에 비해 가해피해의 경험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 변인들(표 5)에서 대해서는 추후분석(Scheffe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 정도는 가해와 일반집단이 가해피해집단과 피해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정도도 가해피해집단보다 일반, 피해, 가해집단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공감은 일반집단과 피해집단이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보다 유의하게 공감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일반집단과 가해집단이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집단주의 경향은 집단괴롭힘 4집단간 1원변량분석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개별비교에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사회적 지지는 4집단의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들 3 경우 모두 가해피해집단이 가해집단, 피해집단, 일반집단의 3집단보다 유의하게 지지를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는 가해피해집단이 가장 많았고, 피해집단과 가해집단이 그 다음으로, 일반집단이 가장 학업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스트레스 또한 가해피해집단과 피해집단이 가해집단이나 일반집단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에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소극적 대처방식은 가해피해집단, 피해집단, 가해집단 3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노출에 대해서는 부모폭력과 매체폭력의 경우에는 가해피해집단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왔고, 가해집단,

표 5. 심리적 변인들의 평균(SD)과 변량분석 결과

변인	일반	가해	피해	가·피해	F	변인	일반	가해	피해	가·피해	F
부 애착	3.80 (.65)	3.83 (.58)	3.60 (.69)	3.56 (.68)	11.01***	학업스트	2.84 (1.03)	3.07 (1.06)	3.15 (1.09)	3.34 (.99)	12.71***
모 애착	4.09 (.65)	4.16 (.54)	3.97 (.69)	3.89 (.66)	9.42***	대인스트	1.87 (.76)	1.96 (.72)	2.37 (.86)	2.46 (.90)	33.39***
공 감	3.62 (.88)	3.31 (.90)	3.56 (.84)	3.23 (.92)	11.84***	적극대처	2.94 (.80)	2.96 (.80)	2.98 (.89)	2.89 (.73)	0.583
자존감	3.67 (.62)	3.65 (.64)	3.47 (.70)	3.33 (.69)	17.98***	소극대처	3.14 (.80)	3.28 (.76)	3.41 (.79)	3.42 (.71)	7.44***
집단주의	3.66 (.70)	3.69 (.71)	3.68 (.81)	3.55 (.64)	2.99*	부모폭력	.19 (.48)	.29 (.47)	.35 (.54)	.72 (.83)	41.68***
개인주의	3.13 (.69)	3.21 (.68)	3.14 (.66)	3.22 (.65)	1.148	교사폭력	.09 (.34)	.31 (.60)	.21 (.58)	.47 (.71)	21.15***
친구지지	3.94 (.85)	4.04 (.73)	3.71 (1.02)	3.48 (1.01)	22.41***	친구폭력	.66 (.31)	.79 (.37)	.75 (.29)	.96 (.53)	26.98***
가족지지	4.22 (.83)	4.24 (.82)	4.04 (.95)	3.90 (.96)	9.74***	매체 폭력	.44 (.68)	.62 (.69)	.61 (.82)	.93 (.89)	22.64***
교사지지	3.35 (.87)	3.27 (.84)	3.24 (.91)	3.10 (.89)	4.66**	비행	0.38 (1.30)	0.43 (1.29)	0.25 (1.16)	1.10 (3.32)	7.86***

* p < .05 ** p < .01 *** p < .001

피해집단, 일반집단의 3집단이 비슷하게 적게 노출된 것을 나타냈다. 교사폭력과 친구폭력은 괴롭힘 4집단간에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즉, 가해피해집단이 가장 많이 폭력에 노출되어 왔고, 그 다음으로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이 많이 노출되어 왔고, 일반집단이 가장 적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의 경우에도 폭력노출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가해피해집단이 일반, 가해, 피해집단의 3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일반집단과 가해집단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부애착이나 모애착, 자존감에서 피해집단이나 가해피해집단보다 높은 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지지와 겪고 있는 스트레스 정도, 폭력노출 정도, 비행경험 정도 등에서는 가해피해집단이 두드러지게 다른 집단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해피해집단은 다양한 주변사람들로부터 가장 적은 지지를 받고 있었고, 학업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또한 다양한 폭력노출과 비행모두에 대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다.

4.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대한 학년별, 성별 예측변인들

여기서는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중 어느 변인들이 학생들의 가해경험과 피해행동을 설명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가해와 피해행동에 대해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각각 성별, 학년별로 구분하여 가해와 피해행동에 대해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가해와 피해경험의 종속변인은 집단괴롭힘 가해값과 피해값이 각각 사용되었고 예측변인은 성별과 학년을 포함한 모든 변인들이 분석 틀에 사용되었다. 이들 변인들 중에서, 학교, 학년, 성별, 부모형태는 더미변수로 전환되었다. 성별과 학년별로 따른 회귀분석에서는 전체 회귀분석에서와 동일하게 종속변인은 집단괴롭힘의 가해값과 피해값이 각각 사용되었고, 예측변인

으로는 성별 회귀분석에서는 성별 변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학년별 회귀분석에서는 학년 변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사용되었다. 이 연구의 관심이 예측변인들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변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분석방식은 stepwise 방법을 사용하였다.

1) 전체학생들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대한 예측변인들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표 6, 7)에 의하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들은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행, 학년, 교사폭력, 친구수의 6가지였고 이들 변인들은 가해행동 전체분산의 26% 정도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었다. 피해행동에 대해서는 부모폭력, 대인스트레스, 가해경험, 또래폭력, 교사폭력, 학년, 친구지지, 가족지지의 8가지 변인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행동의 42% 정도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었다.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해 친구폭력과 교사폭력의 경험은 공통적으로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피해행동에는 이와 함께 부모로부터 겪은 폭력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행동 모두에 학년이 중요한 예측변인이었으나 그 방향성이 달라 흥미를 끌었다. 즉, 가해행동은 높은 학년일수록 더 많이 일어나는 반면, 피해행동은 낮은 학년일수록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모두는 또한 각각 피해경험, 가해경험이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나 집단괴롭힘 현상이 가해나 피해 단독의 행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와 피해가 순환적으로 혹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외에 가해행동에는 피해행동에서와 달리 일반비행이 중요하게 관계되어 있고, 가해행동은 어울려다니는 친구 수가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피해행동은 가해행동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친구와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친구지지와 달리 가족지지는 부적방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즉,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친구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는다는 사실이 집단괴롭힘 피해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반면,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더 많이 받

는 것은 피해행동을 더욱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전체 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 인	B	SE	Beta	t	p
가해경험					
또래폭력	.259	.053	.190	4.908	.000
피해경험	.179	.031	.215	2.15	.000
비행	.344	.070	.769	4.941	.000
학년	7.208E-02	.025	.186	2.927	.004
교사폭력	.108	.035	.100	3.039	.002
친구수	5.718E-02	.021	.118	2.682	.008
(constant)	-.222	.080	.092	-2.797	.005
R ² = .264 F(6,643) = 38.513, p < .000					

표 7. 전체 학생들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 인	B	SE	Beta	t	p
피해경험					
부모폭력	.383	.035	.378	10.875	.000
대인스트레스	.207	.028	.258	7.383	.000
가해경험	.157	.040	.131	3.889	.000
또래폭력	.152	.056	.093	2.724	.007
교사폭력	8.869E-02	.037	.081	2.395	.017
학년	-5.686E-02	.026	-.066	-2.177	.030
친구지지	-6.884E-02	.026	-.093	-2.644	.008
가족지지	6.175E-02	.026	.079	2.376	.018
(constant)	-.300	.174	-.179	-1.719	.086
R ² = .429 F(8, 641) = 60.181 p < .000					

2) 성별에 따른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예측변인들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예측변인들이 남학생과 여학생들간에 차이가 있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8, 9). 가해행동에서 남학생의 경우, 또래폭력과 피해경험, 비행, 학년의 4개변인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 교사폭력, 피해경험, 또래폭력, 매체폭력, 비행의 5개 변인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비행과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남녀 모두에게서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어,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도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많이 하는 남녀 학생들은 일반비행 또한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학생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남녀학생들

에게 모두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가해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래폭력은 남녀 모두에게서 중요한 예측변인인 반면, 이와 함께 교사로 부터 받은 폭력과 대중매체를 통해 겪은 폭력경험은 여

표 8. 남녀별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 인	B	SE	Beta	t	p
남자					
또래폭력	.290	.073	.226	3.960	.000
피해경험	.172	.044	.215	3.895	.000
비행	.295	.113	.140	2.622	.009
학년	9.287E-02	.039	.123	2.383	.018
(constant)	-.105	.106	-.987	-.324	
R ² = .178 F(4,313) = 16.993 p < .000					

여자

교사폭력	2.216	.061	.291	3.541	.000
피해경험	.180	.043	.202	4.226	.000
또래폭력	.269	.076	.182	3.529	.000
매체폭력	.141	.044	.160	3.225	.001
비행	.227	.090	.140	2.529	.012
(constant)	-4.202E-02	.060	-.697	-.486	
R ² = .375 F(5,326) = 39.114 p < .000					

표 9. 남녀별 집단괴롭힘 피해행동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 인	B	SE	Beta	t	p
남자					
부모폭력	.383	.047	.385	8.103	.000
대인스트레스	.246	.039	.281	6.331	.000
또래폭력	.248	.077	.154	3.195	.002
비행	-.367	.120	-.139	-3.063	.002
교사폭력	.115	.048	.112	2.377	.018
가해경험	.129	.058	.103	2.225	.027
(constant)	-.528	.100	-5.263	-.000	
R ² = .438 F(6,311) = 40.367 p < .000					

여자

부모폭력	.375	.052	.358	7.184	.000
대인스트레스	.190	.035	.272	5.468	.000
가해경험	.206	.054	.184	3.823	.000
가족지지	9.525E-02	.033	.038	2.913	.004
친구지지	-9.289E-02	.033	-.139	-2.802	.005
비행	.189	.104	.104	2.117	.035
(constant)	-.340	.210	-1.621	-.106	
R ² = .428 F(6,325) = 40.529 p < .000					

학생에게만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 주변환경으로부터의 폭력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더 많이 설명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년은 남학생의 가해행동에만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 고학년이 될수록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더 많이 일어나는 현상은 남학생에게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피해행동에서 남학생의 경우, 부모폭력, 대인스트레스, 또래폭력, 비행, 교사폭력, 가해경험의 6개가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폭력, 대인스트레스, 가해경험, 가족지지, 친구지지, 비행의 6개 변인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모폭력, 대인스트레스, 가해경험, 비행의 4개 변인은 남녀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의 집단괴롭힘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여학생과 달리 남학생들에게는 친구로부터 받은 폭력경험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에게는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여학생들의 피해행동을 설명하는 친구지지는 부적인 방향을 보여 친구로부터 지지를 못 받을수록 집단괴롭힘의 피해를 더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지지의 영향력은 정적인 방향을 보였다. 즉, 여학생들은 가족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경우 집단괴롭힘을 받을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학년에 따른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예측변인들

다음으로 집단괴롭힘 가해, 피해행동이 학년에 따라서 다른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10, 11).

가해행동에서 보면 4학년의 경우에는 또래폭력, 피해경험, 비행, 적극대처, 매체폭력, 공감의 6가지 변인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학년의 경우에는 또래폭력, 교사폭력, 비행, 용돈, 대인스트레스의 5가지가 유의미한 설명변인이었고, 6학년의 경우에는 매체폭력, 피해경험, 비행의 3가지가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볼 때 세 학년에서 가해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변인은 비행하나 뿐이어서 3학년

표 10. 학년별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인	B	SE	Beta	t	p
4학년					
또래폭력	.420	.099	.288	4.257	.000
피해경험	.279	.056	.322	5.011	.000
비행	.431	.092	.295	4.679	.000
적극대처	.107	.043	.141	2.459	.015
매체폭력	-.139	.059	-.156	-2.369	.019
공감	-9.552E-02	.042	-.132	-2.268	.025
(constant)	-3.674E-02	.200		.183	.855

R² = .468 F(6,170) = 24.877 p < .000

변인	B	SE	Beta	t	p
5학년					
또래폭력	.263	.070	.249	3.771	.000
교사폭력	.141	.048	.191	2.974	.027
비행	.301	.139	.144	2.230	.003
용돈	.132	.055	.143	2.410	.017
대인스트레스	6.915E-02	.035	.118	1.988	.048
(constant)	-.286	.119		-2.392	.018

R² = .265 F(5,215) = 15.524 p < .000

변인	B	SE	Beta	t	p
6학년					
매체폭력	.151	.046	.206	3.280	.001
피해경험	.160	.053	.184	3.006	.003
비행	.350	.140	.154	2.500	.013
(constant)	.277	.051		5.397	.000

R² = .150 F(3,248) = 14.596 p < .000

표 11. 학년별 집단괴롭힘 피해행동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인	B	SE	Beta	t	p
4학년					
부모폭력	.551	.057	.563	9.740	.000
대인스트레스	.189	.041	.231	4.579	.000
가해경험	.215	.067	.180	3.208	.002
(constant)	-.295	.096		-3.065	.003

R² = .602 F(3,173) = 87.224, p < .000

변인	B	SE	Beta	t	p
5학년					
교사폭력	.284	.056	.291	5.054	.000
부모폭력	.244	.062	.235	3.906	.000
대인스트레스	.204	.043	.265	4.792	.000
매체폭력	.115	.045	.149	2.546	.012
(constant)	-.300	.098		-3.050	.003

R² = .361 F(4,216) = 30.458 p < .000

변인	B	SE	Beta	t	p
6학년					
대인스트레스	.228	.049	.283	4.693	.000
부모폭력	.319	.060	.309	5.311	.000
가해경험	.180	.059	.157	3.046	.003
친구지지	-.167	.047	-.217	-5.54	.000
가족지지	.114	.045	.150	2.550	.011
또래폭력	.203	.096	.114	2.102	.037
생활정도	.194	.096	.101	2.035	.043
(constant)	-.773	.344		-2.244	.026

R² = .404 F(7,244) = 23.608 p < .000

의 학생모두 일반비행을 많이 하는 것은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또래폭력은 4, 5학년에서 피해경험은 4, 6학년에서 각각 공통적인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해행동에서 보면, 4학년의 경우 부모폭력과 대인스트레스, 가해경험의 3변인이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5학년에 대해서는 교사폭력, 부모폭력, 대인스트레스, 매체폭력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6학년에 대해서는 대인스트레스, 부모폭력, 가해경험, 친구지지, 가족지지, 또래폭력, 가정생활정도의 7가지가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세 학년에서 피해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변인은 부모폭력과 대인스트레스여서, 3학년 모두 부모로부터 많은 폭력을 받은 학생의 경우 또래들로부터의 집단괴롭힘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해행동에 대해 피해경험이 4학년과 6학년에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난 것처럼, 피해행동에 대해서도 가해경험이 4학년과 6학년에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집단괴롭힘 현상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특히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인이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밝히고, 또한 가해와 피해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학년과 성별에 따라 중요한 변인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에서의 집단괴롭힘 발생빈도와 특징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지난 한 학기동안 집단괴롭힘을 당했거나 집단적괴롭힘을 한 경험의 비율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7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가해자는 19.8%, 피해자는 12.0%,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가해피해자는 가해, 피해 단독 집단보다 2배 이상씩 많은 40.8%에 달했고, 이런 행동에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다는 비율은 단지 23.6%에 불과했다. 학교급별 혹은 연령별 비교가 시도된 기

존의 연구들에서는 집단괴롭힘의 발생빈도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중 어느 집단에서 더 빈번히 발생하는가에 대해 비일관적인 결과를 제시(Whitney & Smith, 1993; Olweus, 1994;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7; 박경숙, 손희권, 1998; 손충기, 1999; 우리교육, 1999; 이춘재, 곽금주, 1999; 이춘화, 1999)하고 있으나, 각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기간과 집단괴롭힘의 측정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구결과들을 서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중생 827명을 대상으로 한 김혜원과 이혜경(2000) 연구와 본 연구는 측정기간과 측정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면, 중학생은 일반집단 39.1%, 가해 25.6%, 피해 9.8%, 가해피해집단 23.9%로 나타나, 초등학교에서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즉, 전체 발생비율에서 볼 때 초등학교의 경우 72.6%의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집단괴롭힘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중학교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적은 59.3%만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에서의 집단괴롭힘 현상이 더 심각한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집단괴롭힘 4집단중 가해피해학생의 비율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 가해, 피해의 순서를 보여 중학생(일반>가해>가해피해>피해)에 비해 가해피해의 비율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들은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를 순환적으로 경험하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상의 결과는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집단괴롭힘 발생빈도가 더 높다는 결과들을(Whitney & Smith, 1993; Olweus, 1994; 손충기, 1999; 이춘화, 1999; 이춘재, 곽금주, 1999) 지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행동은 성별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에 비해 가해피해자의 발생비율이 12%정도 더 많았고, 가해자의 발생비율 또한 7%정도 많았다.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에 비해 피해자의 경우는 2%정도, 일반집단의 경우는 8%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상으로 볼 때 피해자의 비율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에서는 가해 뿐 아니

라 피해 행동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성별에 따른 집단괴롭힘에 대해 비일관적인 결과들을 제시하는 기존의 연구들 중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집단괴롭힘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들(Olweus, 1994; 박경숙, 손희권, 1998; 양계민, 정형희, 1999)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집단괴롭힘의 측정항목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남녀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외국의 연구(Olweus, 1978, 1984)에서 뿐 아니라 일부 국내 연구에서도 남학생들은 집단괴롭힘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수동적이면서 상대하지 않은 것과 같은 무시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는 남녀간 차이를 보고한 바 있다(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 연구소, 1997). 따라서 집단괴롭힘에 대한 성차의 비교에서는 직접적인 공격방법과 간접적인 공격방법을 혼합한 연구도구를 사용하거나 성별과 괴롭힘 방법간의 관계를 통제한 후 결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발생빈도는 학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해피해집단과 가해집단의 비율은 커지는 반면 피해와 일반집단의 비율은 감소하며, 평균값 또한 학년의 증가에 따라 가해경험은 증가하고 피해경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더 많은 반면, 피해경험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혜원, 이해경, 2000)에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들은 1학년에서 2,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가해피해집단, 가해집단, 피해집단 모두의 발생빈도가 감소하고, 반면에 일반집단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종합적으로 집단괴롭힘 현상이 초등학교에서(혹은 그 이전부터) 빈번해지기 시작하여 중학교 고학년이 되면 일단 그 발생빈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7; 박경숙, 손희권, 1998; 우리교육, 1999; 이춘화, 1999; 주성욱, 1999; 손충기, 1999)에서 고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현상이 초, 중학생들에 비해

적다는 연구보고와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발생빈도와 괴롭힘의 심각성 혹은 집요함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이를 감안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학년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첫째, 집단괴롭힘에서 가해와 피해행동 모두는 각각 피해와 가해경험이 각각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괴롭힘을 가해하는 학생들은 다분히 자신도 괴롭힘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은 또한 상당부분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괴롭힘 4집단중 가해와 피해경험을 순환적으로 경험하는 비율이 가해피해집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2%에 달한다는 사실과 일관된 것이다. 이런 가해와 피해의 순환적 특성은 남녀학생 모두에서는 동일하지만,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보다 4, 6학년에서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괴롭힘의 예방과 대책을 고민하는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될 수 없는 집단임에 주목하고, 이들이 왜 순환적으로 이러한 행동에 개입하게 되는가를 밝히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폭력노출은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가해행동에 대해서는 분석된 4가지의 폭력 종류 중 2가지(또래폭력, 교사폭력)가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피해행동에 대해서는 3가지(부모폭력, 또래폭력, 교사폭력)가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경험에 대해서는 또래폭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반면에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부모폭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가해경험에서 또래폭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은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혜원, 이해경, 2000; 이해경, 김혜원, 2000)에서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반면,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는 또래폭력과 교사폭력만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이와

함께 부모폭력의 중요성이 두드러졌다. 즉, 이제까지 가정내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폭력을 경험한 학생일수록 학교에서도 또래들간에 많은 집단적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 대해 부모폭력이 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중학생과 달리 가족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 위치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폭력노출과 집단괴롭힘 가해, 피해행동간의 관계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가해행동에 있어 남학생들은 또래폭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반면, 여학생들은 교사로부터의 폭력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피해행동에 대해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이 남녀학생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은 또래와 교사로부터의 폭력이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는데, 이들 중 또래폭력은 남학생에게, 교사폭력은 여학생에게 각각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면 가해행동에 대해 4, 5학년의 학생들은 또래폭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반면, 6학년학생들은 매체폭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매체폭력의 설명력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특히 고학년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 얻게 되는 공격적 상황들을 주변의 친구들에게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피해행동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결과와 일관되게 부모폭력의 중요성이 전학년의 학생들에게서 1, 2번째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어린 학생의 경우(4학년) 부모폭력 변인 하나의 설명력은 이들 피해행동의 전체분산을 56%정도 설명하고 있어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대처에 대한 노력에서는 이들이 주변환경으로부터 받아온 폭력의 정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성별·학년별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비행을 저지른 정도는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특히 가

해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학생들은 성별, 학년별 차이에 상관없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도 많이 하는 것이다. 일반 학원폭력이 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김준호, 김혜원, 1997; 양계민, 정현희, 1999) 비행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이러한 결과는 비행을 학원폭력의 한 범주에 보는 시각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비행은 가해행동과 달리 피해행동과 관련해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체학생이나 학년별 분석에서와 달리 유독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만 비행은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에 따라 그 방향성이 달랐다. 남학생들은 일반비행을 “적게” 저지르는 학생들이 집단괴롭힘이 피해자가 되는 반면, 여학생들은 일반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반비행을 저지르는 학생들은 또래들로부터 힘의 우위를 차지할 뿐 아니라 자존감 또한 낮지 않음(양계민, 정현희, 1999)을 고려할 때 이들이 집단괴롭힘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경향이 남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현상을 접근하는데 있어서도 일반학원폭력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비행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예방과 지도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나 성별, 학년별 분석 모두에서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가해행동이 아닌 피해행동에만 중요한 설명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지지와 가족지지의 중요성이 두드러졌고, 이는 남학생이 아닌 여학생의 피해경험은, 저학년이 아닌 고학년의 피해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학년 여학생들의 피해경험은 주변인물들의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친구지지는 이들의 피해경험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어(친구지지를 덜 받을수록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함) 피해학생들이 또래들과 경험하고 있는 대인관계 양상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가족지지는 피해경험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

고 있어 가족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고학년 여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더 많은 집단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양상이 집단괴롭힘 집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결과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김혜원과 이해경(2000)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는 학생이 집단괴롭힘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생들이 또래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대표적인 이유로 “왕자병/공주병”이나 “~착하는” 유형을 대표적으로 꼽는(이규미 외, 1998; 이시형, 1998)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듯 하다. 그러나 가족이나 교사의 지지가 과연 여학생들에게만 집단괴롭힘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혹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추후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의 집단괴롭힘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갖지만 몇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집단괴롭힘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집단괴롭힘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구자의 선택에 의해 한정된 변인들만을 다루고 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지역이 서울로 한정되어 있어 이 연구의 결과를 전국의 초등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자료가 초등학생들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을 직접 비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가우디(1999). 왕따 리포트: 왕따 실태, 원인에서 해결 방안까지. 서울: 우리교육.
- 구본용(199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청소년대화의 광장.
- 구창모(1991). 청소년 문제론. 서울: 청소년 개발원.
- 김석진(2000).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실태와 관련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11(1), 111-142.
- 김용태, 박한샘(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준호, 박정선, 김은경(1997). 학교주변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원, 이해경(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 나병현(1996).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 입법조사연구, 238. 국회.
- 동아일보, 2000. 12. 9.
- 동아일보, 2000. 12. 21.
- 박경숙, 손희권(1998). 학생의 왕따(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손진희, 홍지영, 양재혁(1998).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 손충기(1999). 전라북도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전라북도청소년종합상담실.
- 신중순(1991).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용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계민, 정현희(1999).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 피해자, 일반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91-104.
- 우리교육(1999). 왕따 실태, 원인에서 해결방안까지. 우리교육
- 윤진, 광금주(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소.
- 이규미, 문영춘, 홍혜영(1998). 상담사례를 통해 본 “왕따” 현상.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 상담실.
- 이명화(1998).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갈등에 성태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기(1999). 국민일보, 1999년 3월 11일.
- 이시형(1998).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결.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 이영자(1996).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춘재, 박금주(199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 서울: 집문당.
- 이춘화(1999). 집단따돌림 예방 및 지도대책 연구. 한국 청소년개발원.
- 이해경(2000). 집단괴롭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애착 유형과 대인관계특성. *교육논총*, 16권, 게재예정,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 이해경, 김혜원(2000). 폭력노출이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발달*, 13(1), 95-113.
- 장휘숙(1995). 청년심리학. 서울: 장승.
- 장휘숙(1998).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에서 자기관련적 변인의 중재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2), 110-121.
- 정미영(1985). 성취관련 및 대인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성욱(1999). 광명시 청소년 왕따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왕따"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광명시 청소년상담실.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6).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15, 청소년대화의 광장.
- 한국경제신문, 2000. 6. 5.
- 한규석(1996).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종철, 이민아, 이기학(1999). 초등학교의 집단괴롭힘 개입 유형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1), 95-108.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ustin, S., & Joseph. S.(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 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456.
- Barker, R. G., Dembo, T., & Lewin, D.(1941). Frustration and aggression: An experiment with young children. *University of Iowa Studies in Child Welfare*, 18(1).
- Carkhuff, R. R.(1969). *Helping and Human Relations (Vol. one)*. New York: Holt, Rinebart, and Winston.
- D'Zurilla, T. J., & Goldfried, M. R.(1973). Cognitive Processes, Problem solving, and effective behavior. In. M. R. Goldfried & M. Merbaum, *Behavior change through self-control*. New York: Plenum.
- Folkman, S., & Lazalus, R. S.(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a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Howard, D. E.(1996). searching for resilience among African-American youth exposed to community violence: theoretical issu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8, 254-262.
- Maccoby, E. E. & Jacklin, C. N. (1986).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 Press.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Hemisphere(Wiley).
-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Blackwell. Oxford UK & U.S.A.
- Olweus, D.(1994). Annotation: Bullllying at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Reasoner, R. W.(1994). *Self-esteem as an antidote to crime and violenc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73281).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lee, P. T.(1994).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anxiety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5 (2), 97-107.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Whitney, I. & Smith, P. K.(1993). A survey of the

nature and extent of bullying in junior/middle and
secondary schools. *Educational Research*, 35,
3-25.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Predicting Elementary Students' School Bullying Behaviors: On the Bases of their Gender and Grade

Haekyoung Lee and Hyewon Kim

Hanyang University and Hoseo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tried to explore the effects of various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n school bullying among elementary students. The specific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1) i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four groups of students(non-participants,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were different in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 contents of impact on bullying behavior, 2)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variables affecting bullying behaviors, 3) the contents of impacts of the variables on bullying behaviors were different by students' gender and grade. A sample of 1062 elementary students(4~6 grades) completed a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showed that 1) non-participants,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differed in three social variables(gender, grade, school-achievement), and in all psychological variables except individualism and active strategies for stress.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exposure to peer's violence and victim experience of bullying were the most important in explaining the bullies behaviors whereas exposure to parents' violence and offending experience of bullying were the most important in explaining the victims' behaviors. Results of other multiple regressions analyzed by both gender and grade showed that elementary students' bullying behaviors had several differences on the bases of their gender and grade. On the base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variables related elementary students' bullying behaviors and possible interven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school bullying, bullies, victims, bully-victims

원고 접수: 2000년 12월 30일
심사 통과: 2001년 2월 7일